



# 구의회소식

www.gbc.seoul.kr

구민과 함께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강북구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제139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13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지난 겨울을 힘겹게 이겨낸 저소득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내 상공인 모두 서로 협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힘을 다하고, 금년도 예정된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고, 기타 안건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공공근로 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가 관계 부서로부터 있었습니다.

## 주요 안건 심의 내용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일명 CCTV)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제140회 임시회 안내

강북구의회는 제140회 임시회를 4월 6일(화)부터 4월 13일(화)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의정활동

제139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각 위원회 별로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3월 10일, 삼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 현황 보고를 받고 주민 이용시설을 살펴보고 방문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민속에서의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위원회

▶ 3월 10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준공된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현장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 수유역 6번 출구 바로 뒷편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약 33억원을 들여 주차규모 750대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 서울시 최초의 자전거 주차 시스템을 완비한 자전거주차장으로, 작년 12월에 오픈하여 운영중입니다.



### 행정위원회

▶ 3월 9일, 번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업무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93%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지역으로, 대규모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어 타 지역보다 복지수요가 한 층 더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컨베이어를 이용한 자전거 충전이동 시스템과 도난방지 장치, 자전거 수리실, 샤워실, 물품 보관소등 최대한 자전거 주차의 편리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을 꼼꼼히 챙겨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전거 정책 시행과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아직 부족한 이용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